

1-16-2011 주간 메세지

금주의 묵상: 시편 91:1-16

본문: 시편 46:1-48:14

제목: 우리의 피난처이신 야곱의 하나님

이천 년 전에 주님께서 이 세대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시고 하신 말씀들이 눈 앞에 나타날 날이 가까운 때에 살고 있다. 즉, 해와 달과 별들에 표적이 있을 것이며, 땅에는 민족들이 혼란 중에 괴로워하며 바다와 파도가 노호할 것이며, 이 땅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실신할 것이다.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때가 되면 사람들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세와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위를 보고 머리를 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구속이 가까이 왔음이라.”고 말씀하셨다 (눅 21:25-28).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피난처요 힘이시며, 고난 중에 나타나시는 도움이시라.”(시 46:1)고 증거하고 있다. 또한 이 고난의 때에 관하여 “땅이 없어지고 산들이 바다 가운데로 옮겨진다 해도, 바닷물이 노호하고 요동할지라도 바닷물이 불어나서 산들이 흔들릴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다. 그 이유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도성에 하나님과 함께 있기에 두려워하지 않으리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다. 장차 그리스도의 날에 아침에 떠오르시는 의의 태양이신 주님을 만나 하늘의 집에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음으로써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다. 비록 이 땅은 환난 가운데 이방이 격노하고 요동할지라도 주님께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큰 음성을 내실 때에 땅을 녹게 하실 것이며 땅을 황폐케 하실 것이며 그분께서 땅끝까지 전쟁들을 그치게 하실 것이며 활을 꺾고 창을 두 동강 내시며 병거들을 불사르실 것이다. 휴거된 주님의 신부들은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이 모든 광경들을 볼 것이다. 이에 대하여, “와서 주의

역사, 즉 그가 땅을 황폐케 하신 것을 보라.”고 증거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실 것이며 그 때에 모든 이방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게 될 것이며 그 때에 그분께서는 이 지상에서 높임을 받으시는 유일하신 왕이 되실 것이다. 그 때에 이스라엘의 회개한 남은 자들이 손뼉을 치며 승리의 함성으로 하나님께 소리쳐야 하는 바, 그분께서는 온 땅을 통치하시는 위대하신 왕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외치고 있다. 이때에 그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아래에 둘 것이며 다른 모든 민족들은 그들의 발 아래 두실 것이다. 또한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고난 받은 만큼 그들의 유업을 선정하실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므나를 남긴 만큼 통치권을 부여하실 것이다 (눅 19:11-27). 그리스도께서 이방을 치리하시며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실 때에 백성의 고관들이 함께 모일 것이며 그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증거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땅의 제사장 민족이 될 것이라는 선포인 것이다.

이 때에 위대하신 주님께서 두 곳으로부터 크게 찬양을 받으시게 될 것이다. 북편 하늘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과 땅의 예루살렘에 있는 거룩한 시온 산에서 크게 찬양을 받으시게 될 것이다. 이때에 주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시온 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하게 될 것이며 마침내 더 이상 태러가 없는 시온을 활보하며 그 주위를 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인도자가 되실 것이다.

다윗왕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사울 왕을 피해 도망다닐 때, 그는 “내가 주를 신뢰하노라. 어찌하여 너희는 내 혼에게 말하기를 ‘새처럼 산으로 도망하라.’ 하느냐?”고 외쳤다 (시 11:1). 또한 “악인들이 항상 그들의 활을 당기고 그들의 화살을 시위에 대나니 이는 마음이 바른 자를 그들이 쏘려함이라.”(시 11:2)고 외쳤다. 또

고백하기를 “주께서는 의인은 시험하시나(tries) 악인과 폭력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혼이 미워하시는데도. 그가 악인 위에 밋과 불과 유향과 무시무시한 폭풍우를 내시리니 이것이 그들 잔의 몫이 되리라.”(시 11:5,6)고 증거했다.

시편 기자는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오, 나의 하나님이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로다.”(시 91:2)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분의 그늘 아래 거하며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아가야 한다고 증거했다. 그 이유에 대하여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밋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에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에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 명이 네 옆에서, 만 명이 네 오른 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네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네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네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을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시 91:3-15)

주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칠십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 후에 기쁨으로 돌아와서 “주여, 주의 이름을 대면 마귀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하더이다.”라고 말하였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세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노니 아무 것도 너희를 결코 해치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이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눅 10:17-20)

다윗왕은 고난 가운데서 연단 받으면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였다: “의로우신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보리로다.”(시 11:7) 또한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히 12:14)고 권면했다.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 하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에 대하여 증거했다. 첫째는 하나님의 평강에 대하여, 두 번째로는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관하여 말씀했다. 이 마지막 때 환란의 징조들이 나타나면서 두려움이 닥치는 이때에 평강의 하나님의 임재야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첫째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것에 관하여,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빌 4:6,7)고 증거했으며,

둘째로, 평강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삶에 관하여, “끝으로 형제들아, 무슨 일에도 진 참되며, 무슨 일에도 정 직하며, 무슨 일에도 의 로우며, 무슨 일에도 순 결하며, 무슨 일에도 사 랑스러우며, 무슨 일에도 좋은 평판을 얻고, 만일 무슨 덕 이 있거나 무슨 칭찬 이 있으면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라. 너희는 또한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런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빌 4:8,9)고 증거했다.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면서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 살 때에 어떤 두려움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될 것이며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1-16-2011 weekly message

Meditation of the week: Psalms 91:1-16

Main scripture: Psalms 46:1-48:14

Subject: **God of Jacob, our refugee**

Two thousand years ago, Lord Jesus, foreseeing what was going to happen in our generation, spoke to the disciples: **And there shall be signs in the sun, and in the moon, and in the stars; and upon the earth distress of nations, with perplexity; the sea and the waves roaring; Men's hearts failing them for fear, and for looking after those things which are coming on the earth: for the powers of heaven shall be shaken. And then shall they see the Son of man coming in a cloud with power and great glory. And when these things begin to come to pass, then look up, and lift up your heads; for your redemption draweth nigh.**"(Luke 21:25-28)

In the main passage, Psalmist testifies, **"God is our refuge and strength, a very present help in trouble."** And regarding the time of trouble, he made the confession of faith. **"Therefore will not we fear, though the earth be removed, and though the mountains be carried into the midst of the sea; Though the waters thereof roar and be troubled, though the mountains shake with the swelling thereof."**

For the reason of no fear, he is crying out for no fear, for the children of God are dwelling with God in the city of God. Their faith is from the hope of seeing the Lord Jesus, the rising Sun of righteousness in the day of Christ, and dwelling with him in the refugee of God helped by God, and not to be moved at all. Even though the heathen rage, the kingdoms are moved, the Lord shall make the earth melted, when he utters his voice; and he shall desolate the earth. And he shall make the wars to cease unto the end of the earth; he shall break the bow, and cut the spear in sunder; he shall burn the chariot in the fire. The brides of the Lord shall come down to the

earth with the Lord to see all these scenes. Come, behold the works of the Lord what desolations he hath made in the earth, saith the psalmist.

Then, the Lord Jesus shall reveal himself as God as the King of Kings and the Lord of Lords; all the heathen shall exalt the Lord Jesus Christ; he shall be the only King exalted in the earth. At that time, the remnant of Israel that repent their sins shall clap their hands; and shout unto God with the voice of triumph, because he is the great King reigning the whole earth. Then he shall subdue the people of Israel under us, the bride of Christ, and the nations under our feet. And as much as we suffer with Christ in the earth, he shall choose our inheritance for us. In other word, we shall receive the reigning power as much as we gain the pound (Mina) (Luke 19:11-27). When Christ sits upon the throne of his holiness reigning over the heathen, the princes of the people shall be gathered together, even the people of God of Abraham. In other word, the people of Israel shall be the people of priest in the whole earth.

Then the great Lord Jesus shall be praised by the two places: the great city of the King on the sides of the north in heaven, and the holy mount Zion in Jerusalem in the earth. Mount Zion shall rejoice, and the daughters of Judah shall be glad, because of his judgment. Finally they shall walk about Zion, and go around about her without terrors anymore, because the LORD God shall be their God for ever and ever: and he will be their guide even unto death.

King David cried out when he was chased by the King Saul, the model of Anti-Christ saying, **"In the LORD put I my trust: how say ye to my soul, Flee as a bird to your mountain? For, lo, the wicked bend their bow, they make ready their arrow upon the string, that they may privily shoot at the upright in heart."**(Ps. 11:1,2) He also testified, **"The LORD trieth the righteous: but the wicked and him that loveth violence**

his soul hateth. Upon the wicked he shall rain snares, fire and brimstone, and an horrible tempest: this shall be the portion of their cup.”(Ps. 11:5,6)

Psalmist we have to make the confession of faith saying, **“He is my refuge and my fortress: my God; in him will I trust.”**(Ps. 91:2) to dwell in the secret place of the most high, and to abide under the shadow of the Almighty. About the reason, he testified, **“Surely he shall deliver thee from the snare of the fowler, and from the noisome pestilence. He shall cover thee with his feathers, and under his wings shalt thou trust: his truth shall be thy shield and buckler. Thou shalt not be afraid for the terror by night; nor for the arrow that flieth by day; Nor for the pestilence that walketh in darkness; nor for the destruction that wasteth at noonday. A thousand shall fall at thy side, and ten thousand at thy right hand; but it shall not come nigh thee. Only with thine eyes shalt thou behold and see the reward of the wicked. Because thou hast made the LORD, which is my refuge, even the most High, thy habitation; There shall no evil befall thee, neither shall any plague come nigh thy dwelling. For he shall give his angels charge over thee, to keep thee in all thy ways. They shall bear thee up in their hands, lest thou dash thy foot against a stone. Thou shalt tread upon the lion and adder: the young lion and the dragon shalt thou trample under feet. Because he hath set his love upon me, therefore will I deliver him: I will set him on high, because he hath known my name. He shall call upon me, and I will answer him: I will be with him in trouble; I will deliver him, and honour him.”**(Ps. 91:3-15)

The seventy disciples returned to Jesus again with joy, saying Lord, even the devils are subject unto us through thy name. Then Lord Jesus said unto them, **“I beheld Satan as lightning fall from heaven. Behold, I give unto you power to tread on serpents and scorpions, and over all the power of the**

enemy: and nothing shall by any means hurt you. Notwithstanding in this rejoice not, that the spirits are subject unto you; but rather rejoice, because your names are written in heaven.”(Luke 10:17-20)

King David in the midst of trial in trouble made a very important confession of faith saying, **“For the righteous LORD loveth righteousness; his countenance doth behold the upright.”**(Ps. 11:7) Apostle Paul, the writer of the book of Hebrews encouraged the saints saying, **“Follow peace with all men, and holiness, without which no man shall see the Lord:”**(Heb. 12:14) He also testified unto the Philippians of the very important two things. The first one is of the peace of God, and the second one is of the presence of the God of peace. In these last days when the signals of the prelude of Great Tribulation are revealed with fear, the presence of God of peace is the most important for the saints.

Firstly, of the peace of God, he testified, **“Be careful for nothing; but in every thing by prayer and supplication with thanksgiving let your requests be made known unto God. And the peace of God, which passeth all understanding, shall keep your hearts and minds through Christ Jesus.”**(Phil. 4:6,7)

Secondly, of the life in the presence of God of peace, he testified, **“Finally, brethren, whatsoever things are true, whatsoever things are honest, whatsoever things are just, whatsoever things are pure, whatsoever things are lovely, whatsoever things are of good report; if there be any virtue, and if there be any praise, think on these things. Those things, which ye have both learned, and received, and heard, and seen in me, do: and the God of peace shall be with you.”**(Phil. 4:8,9)

When we abide in holiness in the presence of the Lord, any fear shall not prevail against us at all; and we shall see the countenance of the Lord. **Amen. Hallelujah!**